안동양반의 사랑 헛제삿밥

권중걸
한국식품연구원 성과확산홍보실

우리는 흔히 누구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양반이 못 되겠다' 고 한다. 이렇듯 양반은 끼일 자리와 끼이지 않을 자리를 골라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하는 엄격한 윤리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오늘날 우리는 안동 지역을 양반의 고장이라 한다. 양반이란 동반(文班)과 서반(武班)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었지만 요즈음은 행동거지가 올곧고 품행이 바르며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양반이라 함이 좋을 듯하다.

사진 1. 하회마을 농가 풍경

헛기침은 생리적인 기침과는 다른 의도적인 기침으로 주로 양반들이 자신에 대한 존재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헛기침을 사용했다. "에헴! 에헴!" 이러한 헛기침 속에 양반의 권위와 여유를 찾아보려고 조령, 이화령을 넘어 문경, 예천을 지나 안동으로 들어간다. 헛것, 헛일, 헛걸음, 헛다리, 헛고생 등 '헛' 자는 참되지 못한, 소용없는, 속이 빈 등의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헛' 자가 붙어서 괜찮은 단어도 있으니, 헛기침 한 번 하고 양반의 여유로 헛제삿밥 한상을 받아보자.

헛제삿밥은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일을 목숨보다 중히 여겼던 안동지방 양반들의 제사상차림처럼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제기에 음식을 담아 제사 후에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장만하여 먹는 별식으로 안동지방에 내려오는 음식 상차림의 한 형태이다. 예로부터 양반이라 하여 또는 부자라 하여 맛있는 음식을 언제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제삿날에야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사 음식은 주부들의 손과 정성으로 장만되는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그만큼 노동력과 경

비가 많이 든다.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라는 속담을 보면,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도 조상에 대한 제사만큼은 많은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 헛제삿밥

이러한 맛있는 음식을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맛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헛제삿밥' 이다. 헛제삿밥의 유래가 '공부에 지친 안동지방의 양반 유생들이 함께 모여 뱃놀이를 즐기기 전 제사음식을 차리고 축문을 읽어 가짜 제사의 형태를 취한데서 연유되었다' 고 전한다. 연유야 어떻든 '헛제삿밥' 이란 이름으로 정성을 들인 갖가지 음식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조상들의 이웃사랑이 음식에 담겨 있어 인정을 느끼게 된다.

안동지방 양반의 제사음식을 살펴보면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먼저 주(酒), 과(果), 포(脯)는 필수사항이다. 그 다음이 흰 쌀밥인 메와 탕(湯), 시루떡, 약밥 등 떡류, 콩나물, 고사리, 무 등 나물류와 약과, 한과 등 과자류,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문어, 상어고기찜, 조기 등 어류, 두부 지짐, 메밀묵, 물에 갠 밀가루에 배춧잎을 적셔 익힌 배추적, 양념에 저민 소고기를 꼬치를 꿰어 불에 구운 산적, 간장, 안동식혜 등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물을 놋 제기에 담아 올린다.

퇴계집을 보면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조상을 받듦에 있어 정성을 다하였다. '철에 따라 지내는 제사나 시향(時享)에는 아무리 춥고 더울 때라도 병(病)이 아니면 반드시 친히 신주의 함을 받들고 가며 남에게 대신 시키지 않았다. 혹시 한 철에만 나는 물건이나 맛이 특이한 물건을 얻으면 말리거나 혹은 절여 두었다가 제사나 시향 때에 제상에 올렸다. 제사에 쓸 술을 빚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곳을 가리었고 과실이나 마른 고기는 제사를 위해 간직한 것이면 감히 달리는 쓰지 않았다' 고 하니 제사상에 대한 정성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제사 후 음식을 나누는 숙설간(熟設間)인 과방(果房)에서는 그날 제상에 올린 음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이웃에 돌렸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똑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조상의 음덕(蔭德)을 기리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였던 것이다.

어릴 때 추억으로 오늘 누구네 집 제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졸음을 쫓으며 겨울 긴긴 밤을 기다리고는 했었다. 제사를 지낸 집은 그 기다림을 알고 있다는 듯 깜깜한 밤에 제사음

식을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전해주었다. 한밤중에 자다 말고 깨어나 먹는 제삿밥과 반찬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천상의 음식보다 맛있었던 기억이 난다.

이렇듯 정성을 들인 음식이란 의미가 강하게 풍기는 '헛제삿밥'은 안동지방의 향토음식으로 음식을 담는 그릇부터 일반음식과는 차별된다. 요즈음은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지만 10여 년 전만 하여도 정갈한 음식을 조금씩 놋 제기에 담고 밥과 나물은 놋쇠 주발과 대접에 담아 1인 1상의 소반에 차려 나왔다. 헛제삿밥 한상에 안동지방 전통이 물씬 풍겨 나와 내 자신이 당장이라도 양반이 된 느낌처럼 말이다. 또한 먼저 눈으로 음식을 맛보고 그 다음 갖가지 음식의 맛을 먹어서 느낀 다음 대접의 나물에 밥을 넣어 깨소금,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비벼 먹는 비빔밥이 헛제삿밥이다. 반주로 잘 익은 약주를 곁들이면 알싸한 향기가 코끝에 감돈다.

안동 선비의 표상인 퇴계선생의 자녀교육은 남달랐다. 엄격하지만 자애로웠고, 없이 살더라도 선비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아들 준에게 당부하였다. 아들 준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는 혼자서 공부하는 여가에 제사도 받들고 살림도 돌아보아야하니 마음이 흔들리고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만일 세상의 속된 일에 얽매여 공부할 뜻을 그만둔다면 마침내 시골의 쓸데없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여 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가난하고 궁한 것은 선비의 보통 일인데 어찌 마음에 꺼릴 것이 있겠느냐. 너의 아비도 평생에 이 일 때문에 남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많았던 것이다. 오직 굳게 참고 순하게 처세하여 수양하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여 선비는 오직 굳게 참고 순하게 처세하여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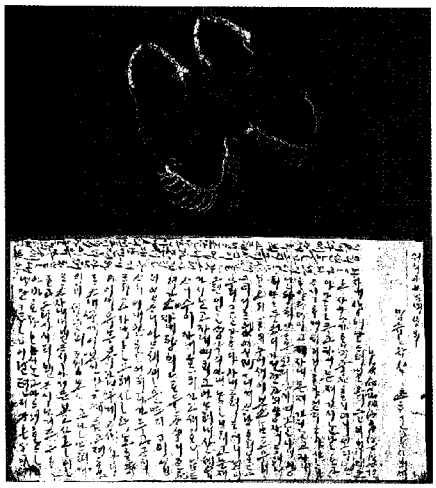

사진 3. 이응태의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와 미투리
(이미지 출처: http://gosunglee.com.ne.kr)

이렇듯 올곧은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은 부부지간의 사랑과 형제지간의 우애로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1998년 4월 안동대학교 박물관 팀의 분묘 이장 발굴 작업과정에서 나온 이응태(1556~1586년)의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부부지간의 사랑과 형제지간 우애의 글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하였다. 사망한 남편과 동생을 위하여 관속에 넣어준 422년 전의 편지글들은 양반사회의 부부사랑과 형제애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응태의 부인인 원이 엄마가 병든 남편의 쾌유를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麻)을 함께 엮어 만든

미투리는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애끓는 부인의 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했으며, 장사(葬事)기간 중임에도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남편의 관속에 넣어준 국문 편지글 역시 사랑을 쉽게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부부지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사진 4. 선비와 각시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한이 없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1586년) 유월 초하룻날 아내가'

또한 형 몽태는 '너와 함께 어버이를 모신지가 이제 서른 한 해가 되었구나. 이렇게 갑자기 네가 세상을 떠나다니 어찌 이리 급하게 간단 말인가. 땅을 치니 그저 망망하기만 하고 하늘에 호소해도 대답이 없다. 내 바라는 것은 어서 하늘로 오르는 것. 또한 내 바라는 것은 부모님이 만수하시도록 네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형이 정신없이 곡하며 쓴다' 고 하여 죽은 동생이 천상에서라도 어버이의 만수무강을 빌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결과일까? 이응태의 아버지는 여든 아홉 살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학과 전통, 익살이 묻어나는 하회마을의 하회 별신굿은 양반과 상민의 화해와 소통, 경건과 경박의 어울림으로 웃음꽃을 피운다.

모든 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맛깔스럽게 비벼지는 헛제삿밥!

헛제삿밥 한 그릇에 양반의 정신이 살아나는 안동! 낙동강 물길 따라 그 맑은 선비의 정신은 굽이굽이 500년을 흐른다.

〔사진제공 | 권중걸〕